

# 무안군 납품·공사도 특정업체 몰아주기

###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유착의혹 업체 최근 4년 133건, 40억원 수의계약 여성·장애인 기업 촉진법 악용도

무안군이 폐기물처리용역 사업비 수십 억원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줘 관련 업체와 유착의혹(광주일보 2021년 10월 21일자 14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처리 외에도 물품·공사 등에서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계약을 몰아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군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을 악용해 문제가 된 업체와 수의로 계약을 몰아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청계면 소재 A업체와 총 133건, 40억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발주규모는 용역 111건, 물품 17건, 공사 5건 등 29억4201만6360원이었다. 최종 수의 계약과는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액수다. 특히 용역 111건 가운데 영산강 수해쓰레기 폐기물처리 용역사업과 관련한 4건 등이 설계가 변경되면서 10억4300만7000원이 증액, 39억8509만360원을 A업체에 몰아줬다.

무안군 계약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군 작전시 병력악동 등 매우 긴급한,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경우'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은 여성기업,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장애인기업과 우선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같은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대표가 여성도 장애인도 아닌 A업체에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 등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여성기업과 장애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계약 부서 관계자는 "저희가 수의 계약정보를 띄우면 프로그램 시스템에 여성기업과 장애인 관련 촉진법으로 계약정보가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면서 "이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가 공용하고 있는데 관련 사항을 세부점검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 9월 실시한 무안군 종합감사 결과 영산강 수해쓰레기용역사업과 관련 A업체와의 특혜 의혹 관련성에 대한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감사관계자는 "2018년 10월~2021년 7월은 올해 종합감사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1004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이 지난 6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 신안1004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공연 '성향'

### 코로나 속 섬 오가며 준비 '감동'

베네수엘라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의 한국판으로 불리는 '신안1004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정기공연이 지난 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신안1004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1년 이혁제 단장(전남도의원)과 유재갑 원장, 박형준 센터장 등이 흥명진 지휘자와 함께 신안 섬을 돌며 아이들을 모아 창단했다.

현재 신안군의 14개 섬 초·중·고교생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신안군과 신안교육청, (사)미래를여는문화회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연주회는 신안1004청소년오케스트라와 신안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로 진행됐다.

70여명의 단원들은 African Symphony(아프리카 심포니) 등 10곡을 연주하며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 배를 타고 섬에서 입해도로 나와 연습을 하고 다시 섬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며 준비한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지역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선물같은 공연이었다"며 "내년에는 잘 준비해서 청와대 또는 국회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영암 무화과 수출길 열렸다... "축성재배 신기술 덕택"

### UAE에 150kg 첫 항공수출

### 11월 수확 저장성 3~4배 길어져

영암의 대표 특산품인 무화과 수출길이 열렸다.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국제 비즈니스 허브 도시인 아랍에미리트(두바이)로 영암 무화과 150kg이 항공 수출됐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본격 수확기는 8월 중하순이다.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기온이 높은 시기로 상온에서 2일 정도밖에 신선도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저장성이 약한 특성으로 무화과 수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무화과 수출은 무화과 시설하우스 축성재배 신기술이 보급되면서 그 가능성이 열렸다.

무화과 수확시기가 기존 8월에서 3개월 뒤인 11월로 시기가 연장된 것이다.

11월부터 수확하는 무화과는 여름 무화과보다 3~4배 저장기간이 길고 과육이 치밀한 게 특징이다. 이러한 재배 특성을 살려 수출이 성사됐다.

홍수 출하기를 피해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영암무화과 수출 기념식.

도 있어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출시장의 구매 고려요인, 당도·식감·색상 등 소비패턴을 모니터링 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수출로 영암무화과의 무

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무화과 친환경 과수전문단지 육성을 위해 스마트 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품질 무화과 생산으로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 코로나 중단 '목포해상W쇼' 11월 매주 공연

### 해상무대 뮤지컬·불꽃 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 또는 축소 공연한 '2021 목포해상W쇼'가 11월에는 매주 공연된다.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 브랜드와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목포해상W쇼는 춤추는 바다 분수와 함께 해상무대 뮤지컬, 불꽃 쇼 등이 한데 어우러진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공연이다.

'W'가 분수 모양을 연상시키는 점에 착안해 물(Water)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World) 쇼, 놀랍고 멋진(Wonderful) 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목포해상W쇼는 애초 7월 말부터 개최할 예정이 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 일정이 지연되거나, 불꽃놀이 없이 공연을 진행하는 등 축소 운영됐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 공연장 입장 자격을 제한했지만, 지난 5·6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수많은 관람

객이 현장을 찾았다.

목포해상W쇼는 11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8시부터 50분간 진행된다.

춤추는 바다 분수 정비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공연을 쉬고, 내년 4월 재개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장을 허용하는 등 개편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해상W쇼는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 도시 목포의 1500만명 관광객 목표 달성을 이룰 새로운 관광 콘텐츠 상품이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버전의 작품을 추가하는 등 더욱 멋진 공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완도군, 곰피 이식으로 '바다 사막화' 막는다

완도군이 갯녹음 현상을 예방하고자 연안에 해조류를 이식해 숲을 조성하는 '바다 정원화 사업'을 펴고 있다.

완도군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남해본부와 함께 이 사업에 2억원을 투입한다.

갯녹음 현상은 수온 상승, 해양 오염 등으로 연안 암반 지역에 해조류가 사라지고 탄산칼슘(석회)이 빠져 바닥이나 바위 등에 붙어 암반 지역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으로 '바다의 사막화'라고도

불린다.

동해 연안은 60% 이상, 제주도는 모든 해안가에서 빠르게 진행 중이다.

군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적지 조사를 통해 바다 정원화 사업의 적합 판정을 받은 군외면 백일도와 신지면 동고리 연안 암반에 곰피를 이식하고 있다. 군은 이달 중으로 이식 작업이 끝나면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관리할 계획이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연안 암반 지역에 이식한 곰피.

## 해남 명품고구마 생산 연구센터 짓는다

명품 해남 고구마의 생산 기반을 마련할 연구센터가 들어선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앞으로 2년간 36억원을 투입, 삼산면 평화리에 해남고구마연구센터 연구동(조직배양실)을 신축하고 부속시설인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다. 고구마 신품종 개발과 안정생산기술 연구로 해남고구마 명품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이를 통해 국내 육성 고구마 조직배양묘 40만본을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우량 조직배양묘가 확대 보급되면 생산성이 일반묘 대비 130~150%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중차산업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im e Bsong Solar Energy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